

NBA “중간 선거일 투표 독려 위해 경기 배정 안 해”

미국프로농구(NBA)가 투표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중간선거일인 11월 8일에 경기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전날 NBA가 중간선거 당일엔 쉬는 대신 전날인 11월 7일에 30개 팀 모두가 경기를 치르는 2022-2023시즌 일정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NBA는 “이런 조치는 초당적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팬들이 중간선거일에 투표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NBA는 또, 선거일 전 몇 주 동안 각 팀에 유권자 등록을 포함한 선거 관련 정보를 팬들에게 알리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선거 전날 밤에는 전국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선거를 테마로 한 행사도 진행한다.



▲ 2020년 10월 NBA 결승전 경기 전에 르브론 제임스가 투표 독려를 위해 "VOTE"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 사진=nypost.com

NBA는 그간 중간선거일이라고 예외를 뒀 경기 일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2018년 중간선거일이었던 11월 6일에는 8팀이 경기했고, 2016년에는 12팀이 맞붙었다. 2014년 선거일에도 16팀의 경기가 배정됐다.

주간지 '더 네이션'의 데이브 지린 기사는 이런 NBA의 결정에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도 최근 NBA가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여해온 점을 보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팬들을 투표소로 이끌겠다는 조치도 NBA가 정치를 대해왔던 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NBA는 2020년 대선 당시 지역 당국들과 협력해 경기장 및 구단 시설 23군데를 투표장, 선거 인력 교육장 등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김주형, PGA 신인상 거머쥘까



이번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주형(20·사진)이 2019년 임성재(24)에 이어 한국인 두 번째로 신인왕을 거머쥘지 주목된다.

김주형은 지난 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 최연소 PGA 정규 투어 우승 기록(20세 1개월 18일)을 세웠다.

이어 지난 15일 끝난 PGA 투어 2021-2022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13위를 기록, 페덱스컵 순위를 25위까지 끌어올렸다. 이 추세라면 페덱스컵 상위 30명만 가는 시즌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출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2021-2022시즌이 개막할 때만 하더라도 PGA 투어 정규 회원이 아니었던 김주형은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곧바로 PGA 투어 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현재 성적으로 보면 캐머런 영(미국)이 신인왕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 영은 페덱스컵 순위 13위에 올라 있다. 영은 이번 시즌 우승은 없지만 준우승만 5차례 하며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된다. 이번 시즌 상금 638만7,098달러를 벌었는데 이는 역대 신인 최다 기록이다.

변수는 영의 'LIV 골프 이적설'이다. 영은 최근 PGA 투어와 갈등을 빚고 있는 LIV 골프 이적설이 나돌고 있어 PGA 투어 회원들의 표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사진=pgatour.com

MLB ‘포스트시즌’ 10월 8일부터 시작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MLB 사무국은 15일 아메리칸리그·내셔널리그 12개 팀이 참가하는 '가을야구'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가을야구에는 올해 초 맺은 새 노사협약에 따라 종전 10개 팀(리그당 5개 팀)에서 2개 팀이 늘어난 12개 팀(리그당 6개 팀)이 출전한다.

각 리그 지구 우승팀 3개 팀 중 승률 1·2위 팀은 각각 1번·2번 시드를 받고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에 직행한다. 승률 3위 팀과 지구 우승 3개 팀을 제외한 팀 리그에서 승률이 높은 3개 팀 등 4개 팀이 3-6번 시드를 받아 와일드카드 시리즈(3전 2승제)를 먼저 벌인다.

디비전시리즈부터 리그 챔피언십시리즈와 월드

시리즈는 종전과 같이 7전 4승제로 진행된다.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10월 7일부터 휴식일 없이 사흘간 열린다. 이어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승자와 시드 1·2번 팀이 치르는 디비전 시리즈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 2022 MLB 우승팀을 정하는 월드시리즈는 10월 28일부터 치러진다.

월드시리즈에서는 양대 리그 우승 팀 중 정규리그 성적이 나은 팀이 1·2차전과 6·7차전 홈 경기 개최권을 가진다.

15일 현재 아메리칸리그에서는 뉴욕 양키스(동부 지구)·휴스턴 애스트로스(서부지구), 내셔널리그에서는 LA 다저스(서부지구)·뉴욕 메츠(동부지구)가 디비전시리즈 직행 가능성이 크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499	\$274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2년 현재 170.1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719	\$2,309
Asset Limit	\$15,510	\$30,95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